한국 축구 '토종 감독시대'

조광래號 내달 나이지리아 평가전 시험무대

빠듯한 준비 기간·해외파 공백 극복이 관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의 대업을 완수한 허정무(55) 전 축구대표팀 감독의 뒤를 이어 8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과 원정 월드컵 8강 진출의 기적을 완성할 새로운 대표팀 사령탑으로 조광래(56) 감독이 선임되면서 '국내 지도자 전성시대'가 열렸다.

한국 축구는 지난 2000년 11월 허정무 감독이 대표팀 지휘봉을 놓으면서 이후 7년 동안 거스 히딩크(네덜란드) 감독부터 움베르투 코엘류(포르투갈), 요하네스 본프레레, 딕 아드보카트, 핌 베어벡(이상 네덜란드) 등 외국인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었다.

그동안 한국 축구의 최고 수장 자리를 외국인 감독에게 내놓으면서 국내 지도자들의 상실감은 컸고, 이후 한일 월드컵 4강 성적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사령탑이 대표팀을 이끄는 동안 눈에 띄는 성적을 거두지 못하자 국내 지도자들의 불만도 커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7년 12월 허정무 감독이 대표팀 사령탑에 취임해 국내 지도자의 시대가 열렸고, 허 감독은 축구협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원정 16강 진출이 성과를 거뒀다.

허정무 감독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구협회 기술위원회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 대비한 차기 사령탑으로 국내 지도자를 뽑기로 했고, 마침내 조광래 감독이 허 감독의 뒤를 이어 대표팀 지휘봉을 잡으면서 오랜만에 국내 지도자가 대표팀 사령탑을 연속으로 맡게 됐다.

이 때문에 조 감독의 부담도 크다.

무엇보다 허정무 감독이 이룩한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축구 색깔을 빨리 대표팀에 이식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더불어 이번 남아공월드컵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수비 강화와 더불어 세대교체도 조 감독의 숙제다. 당장 내달 11일 나이지리아와 평가전을 앞둔 조 감독은 해외파 소집도 쉽지 않은 불리한 상황에서 데뷔전을 치르게 된 것 역시 부담스럽다.

하지만 A매치 한 경기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2011년 아시안컵과 멀게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대비해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내 지도자들은 물론 축구협회 역시 오랜만에 찾아온 '국내 지도자 전성시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연합뉴스

신인발굴 능력 탁월…경남 FC 돌풍 주도

■조광래 감독은

축구대표팀의 새로운 사령탑으로 선임된 조광래 경남FC 감독이 21일 오후 경남 창원축구장에서 기자들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오른 조광래 프로축구 경남FC 감독은 '스타 출신 명 지도자'다.

특히 선수를 보는 눈이 정확하고 어린 유망주를 발굴하는데 일가견이 있어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대비한 '중장기 비전'에 합당한 인선이라는 평이다. 진주고와 연세대를 거친 조 감독은 현역 시절 '컴퓨터 링커'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1970~80년대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미드필더였다.

정확한 패스와 영리한 경기 운영 능력은 물론 타고난 승부욕까지 더해 불과 21세 때인 1977년 싱가포르와 친선 경기를 통해 A매치 데뷔전을 가졌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도 태극 마크를 달고 출전하는 등 현역 시절 A매치 성적은 94경기에서 15골이다.

1988년 친정 대우에서 코치 생활을 시작한 조 감독은 지도자로 성공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 브라질 유학을 거쳐 1999년에 FC서울의 전신 안양 LG 지휘봉을 잡으면서 지도자로서 전성기가 시작됐다.

2000년 우승을 이끌었고 이영표(알 힐랄), 이청용(볼턴), 김동진(울산)을 비롯해 정조국, 고요한, 고명진 등 현재 서울의 주축 멤버들을 키워냈다. 중학교에 다니던 이청용을 서울로 스카우트하고 남아공 월드컵에서 '골 넣는 수비수'로 주가를 높인 이정수(가시마)가 공격수에서 수비수로 포지션을 옮긴 것 등이 모두 조 감독의 작품이다.

2004년 서울 감독에서 물러난 조광래 감독은 이번엔 유럽에서 견문을 넓히다 2008년 경남의 사령탑에 올랐고 이때부터 또 어린 선수들을 키워내는 수완을 발휘한다. 2006년 창단한 '젊은 팀'을 맡아 2008년 FA컵 준우승을 일궈냈고 올해 K리그에서도 4위에 오르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시즌 후반기 김동찬, 이용래 등 젊은 선수들을 앞세운 경남은 '조광래 유치원'이라는 애칭이 붙었고 올해도 이용기, 윤빛가람 등을 조련하며 한때 1위에 오르기도 하는 등 탄탄한 전력을 구축했다.

아기자기한 기술 축구를 선호하는 조 감독은 야인 시절 브라질과 이탈리아, 영국 유학을 통해 선진 축구를 직접 익혀 젊고 개인기가 뛰어난 선수들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탁월한 재능이 있다.

'유망주 발굴 전문가' 조광래 감독이 세대교체가 필요한 축구 대표팀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합뉴스

코리안 드림을 향하여 21일(한국시간) 라스베이거스 데저트 오아시스 고등학교에서 열린 한국프로농구연맹(KBL) 2010 외국선수 트라이아웃에서 참가자들이 연습 경기를 하고 있다.

한국 여자태권도 세계선수권 제패

황경선 MVP…남자부 3위 그쳐

한국이 2010 세계태권도연맹(WTF) 월드컵태권도단체선수권대회에서 여자부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은 20일 밤 중국 우루무치에서 폐막한 대회 여자부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을 3-2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땄다. 2-2로 맞선 가운데 왕해리(서울시청)가 중국 레이지와 마지막 경기에서도 접전 끝에 승부를 가리지 못했지만, 서드데스로 치러지는 연장에서 선취점을 올려 우승을 안겼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황경선(고양시청)은 여자부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남자부에서는 이란이 스페인을 3-1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이란의 모하마드 모타메드는 남자부 최우수선수로 뽑혔다. 한국은 터키와 동메달을 가져갔다.

여자 최우수코치상은 한국의 박은선, 남자 최우수코치상은 이란의 레자 메흐만도우스트가 수상했다. /연합뉴스

"제2의 이용대를 찾아라"

화순서 초중고 배드민턴대회 개막

2008 베이징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이용대의 고향 화순에서 올림픽 제패를 기념한 배드민턴 대회가 열린다.

'이용대 올림픽 제패기념 2010 화순-빅터 전국 초·중·고 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가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화순 하니움 문화 스포츠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는 160여팀 1000여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게 된다. 개막일인 22일 오전 11시 30분에는 이용대 팬 사인회도 열린다.

그동안 많은 배드민턴 스타를 배출한 화순은 화순 코리아챌린지 국제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2010년에는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도 건립될 예정이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목포서 꿈나무체육대회

6개종목 3000여명 열전

초등학생 체육인 조기발굴과 육성을 위한 2010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가 21일 목포에서 개막했다.

이번대회는 탁구, 수영, 육상, 테니스, 유도, 체조 등 총 6개 종목에 3000여명의 선수와 임원진 등이 참가해 오는 30일까지 목포시내 일원에서 열린다.

지난 1985년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26회째를 맞는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는 박태환(수영), 이형택(테니스), 안현수(쇼트트랙), 이원희·최민호(유도), 여홍철(체조) 등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200여명을 배출하며 전문체육인의 등용문이 되어 오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에쓰오일 남자 탁구단 창단

에쓰오일 남자 탁구단이 21일 오전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창단식을 열고 닻을 올렸다.

한국 탁구계의 '대부' 김충용(67) 총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에쓰오일은 삼성생명과 KT&G, 농심삼다수, 대우증권, 상무에 이어 여섯 번째 남자 실업팀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면타법을 구사하는 이정삼(26)과 '차세대 국가대표 에이스'로 꼽히는 오른손 셰이크핸드의 이진권(23), 대우증권에서 활약한 실업 10년차 이정재(27) 등이 창단멤버로 가세했고 부천 중원고 3학년생인 이승훈(18)도 내년에 졸업한 뒤 입단할 예정이다.

팀 간판 자리를 다툴 이정삼과 이진권은 실업탁구의 양대 산맥인 KT&G와 삼성생명에서 활약하다가 에쓰오일로 둥지를 옮겼다. /연합뉴스

산 행 안 내